

109 학년도 1 학기 유라시아재단 국제 세미나
아시아공동체: 동아시아학의 구축과 변모 시리즈 강좌(8)
주제: 일본 복식과 아시아 교류 상관관계 연구 -에도 시대 '사라사'를 중심으로

황운여(黃韻如) 박사
(국립고궁박물관 남부분원 자료소장연구관리과 과장)

제8회 유라시아 재단 국제강좌에서는 국립고궁박물관 남부 분원 자료소장연구관리과 보조 연구원 겸 과장인 황운여(黃韻如) 박사를 초청하였다. 황 박사는 이번 강연에서 진귀한 사라사의 사진을 다량 소개하였는데 학생들이 사진을 감상할 수 있도록 사진에 대한 해설을 곁들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라사의 정의, 일본 복식문화의 영향, [메이부즈기레(名物裂)], 사료의 가치, 일본 사라사를 통해 바라본 고궁박물관 소장의 동남아 방직품 등이었다.

1. 사라사의 정의와 예술적 가치

사라사(Sarasa)라는 명칭의 기원은 일본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16세기 말에서 18세기 동안 외국 상선을 통해 일본으로 전해진 인도의 날염직물(Chintz)을 가리킨다. 당시 인도의 날염직물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며 일본,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등 아시아 각지로 수출되었고 이후 유럽에까지 전파되었다. 인도 날염의 염료로는 천초(madder)나 인디고(indigo)와 같은 식물성 염료가 주를 이루었고, 공예적 특색이 명반, 철, 양젯물 등 매염제와 왁스 방염의 두 가지 기법에 골고루 활용되어 각종 진하고 열은 다채로운 색감의 풍부하며 선명하고 화려한 사라사를 만들어냈다. 후기에는 공급량의 부족으로 목판을 이용한 압인 기법이 발전하였다.

2. 사라사가 일본 복식문화에 끼친 영향

사라사와 관련된 일본 최초의 기록은 영국 동인도회사의 선장이었던 존 새리스(John Saris, 1580-1643)가 집필한 《일본항해기》에 나타난다. 존 새리스는 게이초 18년(1613년) 히라도(平戸) 섬에 도착하여 히라도 번(平戸藩)의 성주에게 인도의 면직물과 사라사를 증정하였으며 이후 더 많은 사라사, 사라사 원단 등을 수입하여 많은 수익을 얻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기록에 따르면 카네이 10년에 쇄국시기로 진입하면서 각종 화려하고 아름다운 사라사가 왕에게 조공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라사의 수입으로 일본의 염색기술은 크게 약진하였다. 그러나 당시 사료에 의하면 이 시기에 일본의 사라사는 착색율이 좋지 못해 세탁 시 퇴색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근대 일본의 염색기법으로 수공 직염기법(테가키조메, 手描き染), 교염(츠지가하나조메, 辻が花染), 자수 염색기법(가노꼬시보리, 鹿の子絞), 방염(유젠조메, 友禅染) 등이 있는데 사라사는 이 같은 일본 방염기술에 큰 영향을 주었다.

황 박사에 따르면 「기모노」(kimono)는 에도시대에 「코스데」(kosode)로 불렸는데 메이지 시대에 들어와 서양문물이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일본복식과 외국복식인 「유후쿠」(yuhuku)를 구분하기 위해 「기모노」라는 명칭을 붙이게 되었다고 한다. 반면 유젠조메(友禅染)는 미야자키 에도 중기 교토에서 활약한 유명한

부채화가 미야자키 유젠(宮崎友禪)으로부터 유래되었다고 한다. 그는 화조도에 능했으며 겐지 이야기(源氏物語)에 삽입된 궁녀 인물화가 유명하다. 후에는 염료를 이용하여 진일보한 자신만의 우아하고 화려한 기모노 문양을 창작하여 발전시켰다.

3. [메이부츠키레(名物裂)]로부터 [사라사]까지

외래 염직물이 전래되면서 일본 방직문화와 기술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남송(南宋), 원(元), 명(明)을 통해 대량의 중국 원단이 유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도의 사라사까지 수입된 것이다. 남송(南宋), 원(元), 명(明)의 방직품들은 주로 귀족, 무사, 실내 인테리어에 쓰여 신분과 부를 나타냈다. 일본의 다인(茶人)들은 특별히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직물을 선호하여 서화 표구, 다기보 등에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장하고 감상하기도 하였다. 찻잔을 담은 상자를 싸는 천은 사라사를 사용하였다. 에도 중기부터 이러한 물품들을 책으로 정리, 분류하여 통칭 [메이부츠키레(名物裂)]이라고 칭하였다. [명물(名物)]은 유명한 또는 구하기 어려운 물건을 뜻하며 [열(裂)]은 파편, 잔해의 뜻을 지니고 있다. 주로 유명인사, 귀족, 다인 등의 문화적 소양과 학식을 나타내는 데 쓰였다.

4. 일본 사라사의 역사적 가치

당시 일반인들은 진귀한 직물의 소유가 불가능했으므로 단지 화첩으로 감상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좌라사편람(佐羅紗便覽)》, 《증보화포편람(增補華布便覽)》, 《사라사도감(更紗圖譜)》 등의 화첩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일본 후기에는 사라사의 모조품이 제작되어 와사라사(和更紗)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천연염료를 구하기 어려워 인도 사라사의 붉은색을 염색해내지는 못하였다. 에도 막부시대의 쇄국정책 이후 많은 <단물체본장(端物切本帳)> 을 남기게 되었다.

5. 일본 사라사로 본 고궁박물관 동남아 직물 소장품

황박사는 사라사 연구의 의의와 효용은 고궁박물관 소장품과의 비교대조에 있다고 밝혔다. 박물관의 주요 업무는 소장품의 연대를 정하고 이름을 붙이며 품질을 검증하는 것이다. 일본 문화 중 각종 사라사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 및 보관함으로써 비교연구에 매우 큰 참고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의 비교 고찰을 통해 고궁박물관에 소장된 동남아 직물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황박사는 박물관의 주요 업무인 문물연구, 전시기획, 전시품 진열, 광고 마케팅 등이라고 소개하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언어의 강점을 이용하여 박물관과 연계하기를 희망하며 학생들의 많은 참관을 환영한다고 하였다.

(인터넷 홈페이지: <https://Eurasia.pccu.edu.tw/faculty.php>)

번역: 이현주(李炫周) 한국어문학과 석사과정

감수: 김선효(金善孝) 한국어문학과 부교수

